

Cześć, Poland(안녕, 폴란드)!

[체시치]

-유럽 진출의 교두보-

강미정 연구위원



폴란드는 시장경제 체제 전환에 성공하며, 중동부 유럽의 핵심 국가로 부상

유럽 중동부에 위치한 폴란드는 현재 여타 비셰그라드* 국가들을
합친 것보다 큰 경제 규모 보유

동유럽 국가들은
제2차 세계대전
종료 후 소련
위성 국가로 편입



1989년 이후
사회주의 붕괴,
시장경제 체제로의
전환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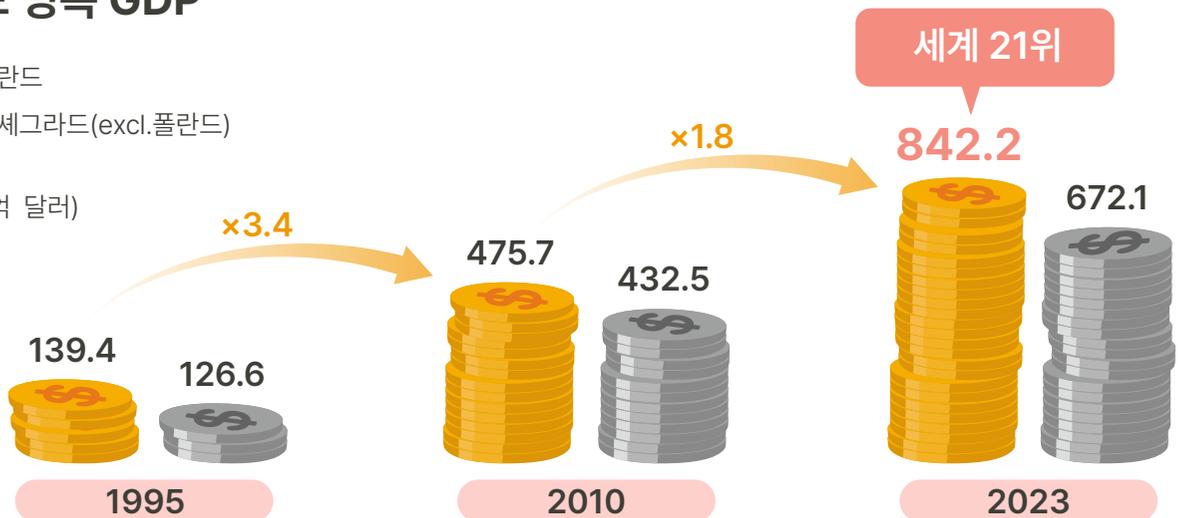


* 비셰그라드는 폴란드, 헝가리, 체코, 슬로바키아 등 시장경제 체제 전환에 성공한 국가를 지칭

폴란드 명목 GDP

- 폴란드
- 비셰그라드(excl.폴란드)

(단위 : 십억 달러)



* 자료 : IMF

소비 구매력과 생활 수준도 빠르게 향상

(단위 : 천 달러)



* 자료 : IMF

제조업에서의 경쟁 우위 확보로 생산/물류기지로서의 허브 역할

1 지정학적으로 전략적 위치
: 서-동 유럽을 잇는 교두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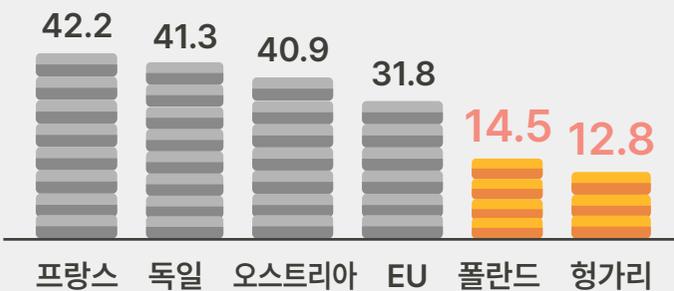
2 EU에서 6번째로 큰 내수 시장
(약 3,800만 명의 인구 보유)



3 경쟁력 있는 노동력 (서유럽 대비 낮은 임금, 숙련된/젊은 인력)

시간당 인건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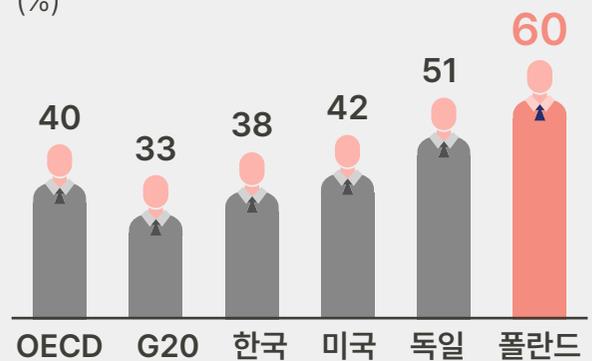
(유로)



* 자료 : Eurostat

중등 교육 이상 인구 비중(2022)

(%)



* 자료 : OECD

러-우 사태 이후 지역 안보의 중심지,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의 전략적 가치 증대

NATO 회원국인 폴란드는 우크라이나向 무기 공급 허브 역할 수행
안보 기조 강화 속 중동부 유럽 안보의 핵심 국가로 부상

러-우 전쟁 이후
국방 현대화 추진



지정학적 리스크 대응을 위해
국방비 지출 확대



무기 생산 및 수입 확대



기갑 현대화



강력한 포병, 로켓포 구축



드론, 차세대 헬리콥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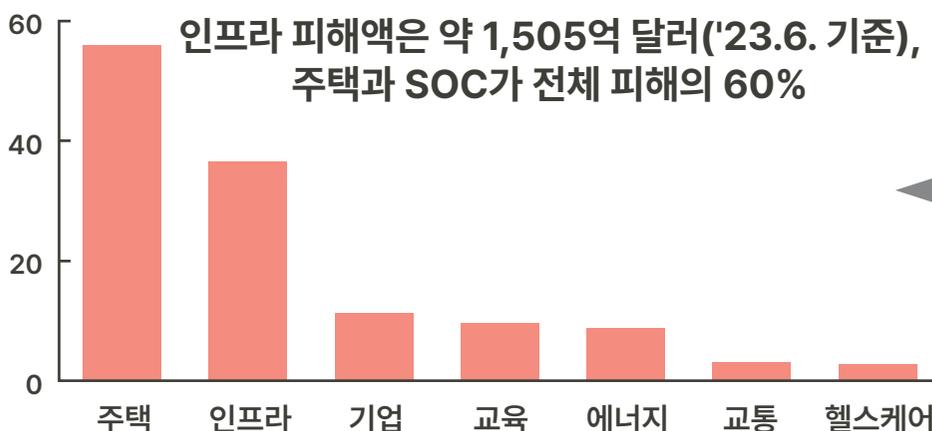


공군, 대공방어

우크라이나와 지리적 근접성 및 최대 지원국인 점 등 감안 시
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 중추적 역할 기대

우크라이나 주요 분야별 피해 규모

(십억 달러)



재건 사업 참여 시
폴란드의 경제적 이익은
GDP의 3.6~3.8%에
이를 것으로 추정

* 자료 : 키이우 경제연구소, KOTR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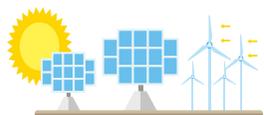
韓 기업들의 투자진출도 확대되고 있으나, 중장기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한 전략 수립 필요

자동차/전자 부품, 건설, 배터리 업종을 중심으로 진출



폴란드의 산업정책 방향과 맞물려 한-폴 협력 강화

(폴) 2040 에너지 전략



원전 수출 확대를 위해 '팀 코리아' 결성



(폴) 자주 국방 추진

한국산 무기 수출 계약 체결

중장기적으로 주요 산업(방산/우크라이나 재건/원전)의 리스크에 유의

방산

EU의 방산 보호주의 확대 → **非유럽계 기업의 진입 장벽 강화**

우크라이나 재건

美 트럼프(고립주의) 당선 가능성↑ → 재건 사업 특수 기회 약화

원전

美 웨스팅하우스와 분쟁 지속, 원전 수주 경쟁 심화로 수익성 저하